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조치 추진

-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동향 및 시장 영향 점검
- 신규상품 출시 잠정 중단, 기본예탁금 한도 상향 등 시장 안정 방안 논의
- 금리 관련 시장상황 면밀히 점검,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 차질없이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 7. 16.(목) 15: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덕원,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참석자들은 최근 그간의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및 리밸런싱, 글로벌 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 우리 경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 작용하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외 비대칭규제 해소, 증시 선진화 등을 위해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바,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투자수요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다.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되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투자자 대상 위험안내 및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단위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실제 자산가치와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현재 국내주식 ETF·ETN 3%, 해외주식 ETF·ETN 6%)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 시 해당 상품 관련 증권사 및 운용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 및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세부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한편, 금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층 등 취약차주 부담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재정경제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근우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jeeminkim@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인욱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이경배 (groundback@korea.kr)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책임자	과 장 최치연 (02-2100-2660)
		담당자	사무관 장지원 (asset1234@korea.kr)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박성진 (02-759-4777)
		담당자	과 장 정승환 (sh.chung@bok.or.kr)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은성 (02-3145-8180)
		담당자	수 석 김태중 (kim-tj@fss.or.kr)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제도팀	책임자	팀 장 류지웅 (02-3145-6717)
		담당자	선 임 윤찬송 (sheep@fss.or.kr)